

■ KIA 타이거즈 남해 캠프

한기주 내년부터 '뒷문 단속'

김종국 오늘 FA 최종협상



◇ 한기주

서감독 "불박이 마무리로 기용"

박정태·전병두는 선발진 합류

'선발'과 '마무리'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던 '10억짜리' 한기주(19·KIA)가 내년 시즌 마무리로 낙점됐다. 서정환 KIA 감독은 15일 마무리 훈련이 한창인 경남 남해 캠프에서 "내년 시즌 한기주를 마무리로 기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계약선수(FA) 김종국(33)이 원 소속구단인 KIA와 두번째 협상이 결렬돼 16일 최종 협상을 벌인다. 김종국은 지난 14일 KIA 구단사 무실에서 오현표 운영팀장과 만나 자리에서 먼저 "계약금 8억원과 연봉 1억5천만원씩 3년동안 총 12억5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위력투를 뽐냈다. 후반기에는 KIA의 4장 진출을 견인할 만큼 키 플레이어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특히 한화와의 준플레이오프(준PO)에서는 마무리로 출전, 신인답지 않는 배짱투를 던지며 마무리 투수로서의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재홍 '주장'

AG 야구대표팀 최연장자 "대회 3연패 구심점 되겠다"



노부히코(현 소프트뱅크)에게 홈런을 맞아 한국이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드림팀으로 새롭게 출범한 대표팀에서는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재홍은 1999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 2003년 삿포로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도하 아시아게임에서 6번째 드림팀에 출장한다.



'골프 황제'의 티샷을 잡아라

타이거 우즈가 15일 일본 미야자키현 피닉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일본 프로골프 던롭피닉스 프로오픈대회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이아몬드백스 브랜던 웹 NL 사이영 상 영예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투수 브랜던 웹(27)이 내셔널리그(NL) 최고의 투수로 인정받았다. 웹은 15일(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WAA)가 실시한 NL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표 15표와 2위표 7표 등 총 103표를 얻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마무리 투수 트래버 호프먼(39)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에이스 크리스 카펜터(31)를 따돌리고 수상 영예를 안았다.

WBC 다음대회 2009년 개최

지난 3월 전 세계 야구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차기 대회가 2009년 개최된다. 미국 프로야구는 15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단장회의를 열고 제2회 WBC를 3년 뒤 열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2009년 이후에는 4년 주기로 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위성미 또 PGA 출전

내년 1월 소니오픈서 초청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지리아)가 4년 연속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 초청장을 받았다. 15일(이한 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위성미는 메인 스폰서이기도 한 소니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내년 1월 11일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 이골프장에서 열린 소니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다.



위성미가 1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니오픈 출전과 오아후 카미일레초등학교에 컴퓨터 30대 기부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KPGA 챔피언스 인비테이션얼 개막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역대 우승자들끼리 승부를 겨루는 동부화재 프로모비 KPGA 챔피언스 인비테이션얼이 16일부터 17일까지 경북 포항의 오션뷰골프장(파72·6천784야드)에서 열린다. 일반부와 시니어부로 나뉘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우승자 38명이 출전해 총상금 1억2천만원을 내걸고 컷오프 없이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진행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